

광주시립미술관 새 작품 보러 오세요

내달 18일까지 '신소장품전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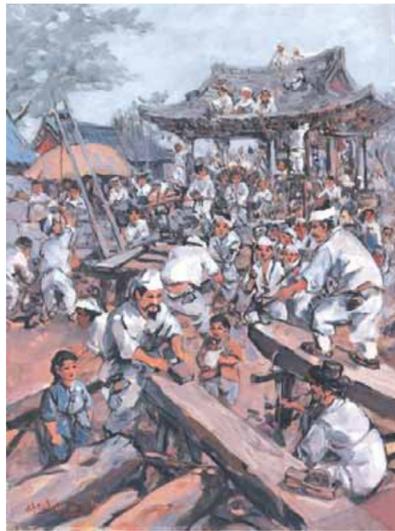
지난해 구입·기증 등 146점 수집
44명 작가 참여 작품 56점 선보여
중견·민중미술·청년작가 나눠 전시



윤세영 작 '피랑-숲 섬'



김영석 작 '달항아리'



오승운 작 '풍속화'

작품 수집은 미술관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다. 지역 최초의 국립미술관인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 역시 1995년 개관 후 매년 다양한 작품을 수집하고 있다. 미술사적 가치를 지니는 작품들과 지역 정체성에 부합하는 국내외 다양한 작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미술관 소장품은 모두 4789점이다. 이중 광주시립미술관 명예관장이기도 한 재일교포 사업가 하정웅씨가 기증한 '하정웅 컬렉션' 2536점을 제외하면 미술관이 순수하게 수집한 소장품은 2253점이다.

광주시립미술관의 연간 작품 구입비는 7억원 수준으로 지난해에는 133점을 구입했으며 기증작 13점을 포함해 모두 146점의 작품을 수집했다. 일반수집 72점, 청년작가 공모 15점, 광주국제아트페어수집 26점, 기증작품 13점 등이다.

광주시립미술관이 지난해 구입한 신작들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신소장품전 2017'을 오는 3월 18일까지 5·6 전시실에서 연다.

이번 전시에는 국중호·기옥란·김영삼·박광구·박남재·박상섭·박세희·오건탁·오연규·조현택·정정엽·장창익·허건·허재득 등 44명의 작가와 1개 단체가 참여해 모

두 56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올해 소장품전은 세 개의 공간으로 나눠 구성했다. 전시 도입부인 첫번째 공간에서는 지역 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고·원로 작가들과 지역 화단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중견작품들의 작품을 담았다. 오승운·박남재·김형수·김영석 등의 회화와 공예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두번째 공간에서는 지역의 정체성인 민주, 인권, 평화의 정신을 표현하는 현실참여적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미술관은 매년 지역미술사 연구와 미술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민중미술을 수집하고 있다. 이명복, 홍성민 등의 작품이 소개되며 특히 지역 민중미술계를 견인했던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 창작단의 작품이 눈길을 끈다.

마지막 공간은 지역 미술계를 이끌 차세대 주역인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는 공간이다.

한편 하정웅컬렉션은 지난해 문을 연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에서 특별전 등의 형식으로 꾸준히 전시중이다. 문의 062-613-714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광주시향 가족음악회... 내일 문예회관 소극장



오신정



이주혜



김영연

광주시향교향악단은 오는 21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가족음악회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연다.

프랑수아즈 사강의 소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에 나오는 브람스 교향곡을 비롯해 감각적이며 로맨틱한 곡들을 연주한다.

광주시향 부지휘자 김영연의 지휘로 첫 무대는 주제 '시인과 농부' 서곡이 문을 연다. 두 번째 곡은 19세기 오스트리아 플루티스트 프란츠 도플러의 '두 대의 플루트를 위한 협주곡 4단조'다. 플루트 2중주의 매력에 돋보이는 곡으로 광주시향의 국내 첫 초연이다.

피날레는 브람스 '교향곡 3번 F장조'다. 고독한 인간의 의지와 정서를 담은

작품으로 서정적이며 초연하다. 소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에 등장하면서 유명해진 이 곡은 브람스 음악 중 가장 달콤한 선율을 들려준다.

이날 공연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플루티스트 오신정, 이주혜가 협연한다. 오신정은 KBS 교향악단 부수석으로 15년 동안 활동했다. 현재 인제대 음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일본 Biwako 국제콩쿨심사위원(2013년), 한국플루트협회 이사를 겸하고 있다.

이주혜는 뉴욕 마네스 음악학교 석사, 뉴저지 리트거스 대학에서 박사를 수료하고 현재 광주예술영재원에 출강 중이다. 관람료 전석 1만원(학생 50%), 문의 062-524-5086.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런던 내셔널갤러리 대표 회화 작품 감상

인문지행 문화예술기획 행사... 25일 광주극장 영화의 집

인문학 시민공동체 '인문지행'의 문화예술기획 행사로 오는 25일 오후 2시 광주극장 영화의 집에서 열린다. 문화예술기획은 세계 미술관의 명작 감상을 통해 문화 예술적 가치를 시민과 공유하고 인문적 정신의 확장을 지향하는 시민강좌다.

이번 행사에서는 영국 런던 내셔널갤러리 북관에 전시된 17세기 프랑스와 플랑드르 회화의 대표작들을 감상한다.

강의에서 만나는 명화는 영국이 자랑하는 풍경화가 터너의 걸작 '운무를 헤치며 떠오르는 태양', 렘브란트의 '목욕하는 여인', '플로라로 분장한 사스키아', '63세 때의 자화상', 베르메르의 '바지 앞의 선 여인' 등이다. 또 클로드 로랭의 '시바의 여왕의 승선', 독특한 화풍으로 17세기 네덜란드 장르화를 대표하는 호흐의 '델프트의 집 안마당' 등도 만날 수 있다.

기획과 진행은 '인문지행'의 대표 심숙



렘브란트 작 '63세 때의 자화상'

숙 박사가 맡고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인문지행(cafedaum.net/h-arete) 문의 010-2656-9208, 010-5205-566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아트홀 '공연 보는 날' 14개 참여 단체 선정

광주아트홀이 소극장 활성화와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활동을 위해 진행하는 '공연 보는 날' 사업이 올해도 계속된다.

광주아트홀이 지난 1월 공모한 '2018 문화 페스티벌-공연 보는 날' 대상 단체가 선정됐다.

'공연 보는 날'은 광주아트홀이 소극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 문화예술단체에게 매주 금요일마다 공연장을 무료로 대관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선정된 공연팀들은 매주 금요일에 소극장에서 공연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더 많은 시민들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공연 요일을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선정된 단체는 총 14개로 재즈, 뮤지컬, 실용음악, 국악, 클래식, 팝페라 등 다양한 장르의 단체가 선정됐다.

재즈분야에는 ▲박영렬 재즈콰르텟-뷰티풀 러브 ▲강운숙의 재즈여행-윈터



지난해 '공연 보는 날' 사업에 선정돼 공연을 펼친 '박영렬재즈콰르텟'의 무대.

폴 재즈&클래식, 뮤지컬 시네마, 국악과 재즈의 어울림 ▲재즈이노베이션-재즈 및 라이프 ▲뮤직 갤러리 공연기획 연구회- '음악전시회' 추억여행 ▲아쿠스틱재즈밴드 로맨스코드-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 ▲JS뮤지션스그룹-웰컴 스프링 ▲SOOF-정기연주회 등이 무대를 꾸민다.

뮤지컬로는 ▲YPA-'사내가네'(사재간 에) ▲문화나눔 뿌리-한때는 소녀였던 우리 할매 ▲에듀퍼포밍그룹 이끈음-뮤지컬 갈라콘서트 등이 공연을 선보인다.

또 실용음악으로는 ▲김스타운-Bottle Live ▲7989-올댓뮤지, 국악장르로는 ▲여유(旅遊)-'여유'의 국악이야기 ▲에

공연장 대관료·악기 등 지원
4월부터 매주 금요일 공연

듀퍼포밍그룹 이끈음-뮤지컬갈라콘서트가 관객들을 찾는다.

선정된 단체 중 '박영렬 재즈 콰르텟'은 대중가요, 가곡 등 친숙한 음악을 편곡해 재즈와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뷰티풀 러브'를 총 4회 진행한다. '문화나눔뿌리'는 5·18과 관련된 창작뮤지컬 '한 때는 소녀였던 우리 할매'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아픔과 고통과 사회라는 현실의 아픔을 관객들에 전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본격적인 공연은 오는 4월부터 시작되며 선정된 단체에는 대관료, 조명, 음향, 피아노, 드럼 등 악기, 분장실과 대기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지원된다.

광주아트홀은 공연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공연 보는 날' 공모를 진행, 15개 단체가 총 42회 공연을 개최했다. 문의 062-227-7440.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내 집같은 편안함! 고가의 여행대 휴식을 한 차분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방차, 당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 정식

알찬행사를 위한 연회장 세마니를 위한 명상 사당이 갖춰진 등-소규모의 연회장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맛집 since 1981 37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IANG HOTEL